

CHUKSAN News

축·산·소·식

[한우]

이효리 "한우 정말 좋아해요"

한우홍보대사로 위촉, 한우 3인분도 거뜰



▲ "한우 홍보에 도움이 될 것" - 한우자조금관리위는 14일 신라호텔에서 이효리씨를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이자 최고의 인기 연예인 이효리씨가 한우 홍보대사로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선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4일 낮 12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홀에서 '천하무적 이효리 & 천하무적 한우' 라는 제목으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이효리는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에 대해 "평소에 한우를 즐겨먹고 국민들 모두가 한우를 좋아해 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만큼 한우 홍보에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연예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어떤 홍보대사도 맡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한우홍보대사가 처음이다"며 "한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남호경 위원장은 이효리씨가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기쁘며 한우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이효리씨의 명성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호경 위원장은 한우 홍보대사인 이효리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며 한우 많이 드시고 힘내서 한우 홍보에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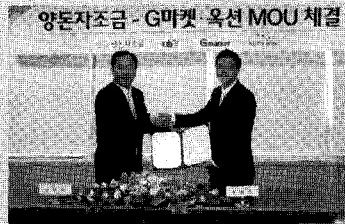
한편, 이효리씨에게 한우의 어느 부위를 특히 좋아하고 어느 정도 먹냐고 묻는 질문에 이효리는 한우는 전 부위를 좋아하며 이중 안심을 특히 좋아하고 많이 먹을 때는 3~4인분정도 먹고 다이어트할 때는 1인분정도 먹는다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 곽동신 · ai@livenews.com

[양돈]

'한돈' 온라인서 소비자와 만난다

양돈자조금 G마켓과 옥션 MOU 체결... 8월 '한돈관' 오픈



국산 돼지고기의 새 이름 '한돈'의 상표가 붙은 제품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 이병모)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오픈마켓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과 국내 돼지고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

터 G마켓 내 '프리미엄 한돈관' 이 오픈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G마켓과 옥션의 온라인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몰 운영 및 온라인을 통한 돈육 판매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G마켓과 옥션은 전문기관이 인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신선식품 판매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G마켓 관계자는 현재 월 4억원가량의 국산 돼지고기 판매액을 내년에는 월 1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리미엄 한돈관' 은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판매처로 선진 포크, 돈마루, 팔공포크, 청미원, 대상하이포크 등 전문 브랜드 업체가 입점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병모 위원장은 "자조금 신규 사업의 하나로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를 잘 알고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광진 부사장(G마켓-옥션)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프리미엄급 국산 돼지고기 공식 판매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 홍귀남 · xd4078@hanmail.net

[양계]

닭검정소 양계전문교육 기능 견비

양계협 검정위, 이전 · 사업활성화 방안 논의

닭경제능력검정소가 양계전문교육기능을 겸비한 복합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닭경제능력검정소 매각에 따른 이전 및 검정사업활성화 방안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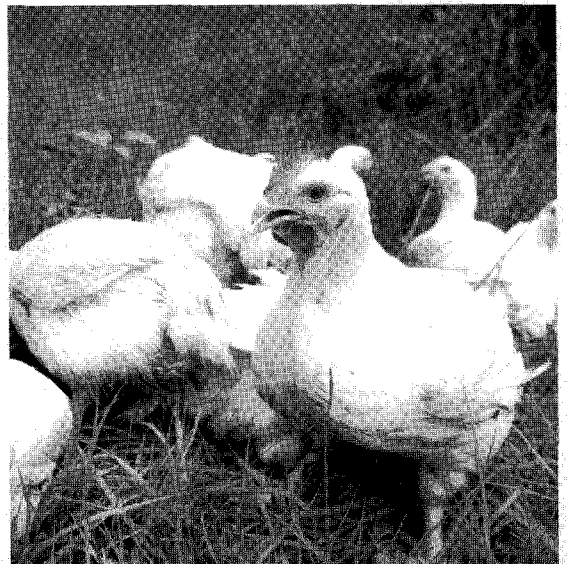
해 집중 논의 했다.

이날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경기도 안성의 닭경제능력검정소가 지난달 22일 매각됐다"며 "이에따라 오는 8월 22일까지 이전작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정기간 동안 능력검정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봉국 검정위원장은 "능력검정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았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이로인해 육계 능력검정은 다음달 18일 마감하되 신란계의 경우 검정중인 계군이 72주령에 달하는 날까지만 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정소 이전부지의 경우 양계협회 이사회를 통해 '검정소 이전추진위원회' 를 구성, 본격적으로 물색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 검정소 부지는 방역상 12개월간 반경 30km이내에 법정전염병(ND, AI 등) 발생이 없던 지역으로 한정하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HACCP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검정소 이전과 함께 양계전문교육 기능도 수행토록 한다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검정소내에 검정관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관도 설치키로 했다.



검정관에서는 종계와 실용계에 대한 경제능력검정사업이, 교육관에서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직업훈련과 축산업 면허제 및 전문교육사업 등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검정소 부지 매각비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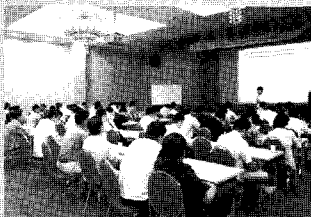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닭검정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 만큼 향후 검정업무와 검정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축산신문 · 노금호 기자 · kumho1234@naver.com

낙농

젖소검정, 농가 소득증대 효과 높아

농식품부 2009년 개량평가결과, 검정농가 산유량 일반농가 평균 상회



젖소검정사업이 낙농가들에게 연간 2천 4억원의 소득을 추가로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10년 젖소개량 지도원교육(사진) 및 2009년도 젖소개량평가대회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 양평 소재 대평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서 농협중앙회는 젖소검정 농가는 검정에 따른 효과로 산유량이 증가해 일반농가에 비해 연간 2천 4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두당 산유량의 경우 1980년 4천 957kg에 불과했던 검정농가의 산유량은 2009년도 9천 563kg으로 2배가 증가해 일반농가의 평균 약 7천 997kg에 비해 1천

500kg 정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검정농가가 호당 유대수입이 5천 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2009년도 젖소개량평가대회에서는 경기 평택의 두희목장(대표 이재광)과 경북대구나협(조합장 박남용)이 각각 최우수 검정농가와 조합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지난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당한 현웅목장(대표 차진숙)의 현웅33호는 생애최고유량생산우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웅33호는 1997년 1월 9일생으로 9산차에 3천 475일을 착유했으며 총 14만 4천 771kg을 생산했다.

생애유량부문에서는 2009년도까지 10만 kg을 넘게 생산한 젖소는 148두로 2008년도에 비해 24두가 늘어났다. 두당 산유량 최우에는 연산목장(대표 김삼용)의 연산365호로 성년형유량 2만 3천 38kg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09년도 검정참여농가는 3천 669호로 낙농가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어들었으나 검정참여율은 54.2%로 0.3%가 증가했으며 경산우수는 15만 555두로 1천 829두가 늘어나 60.7%로 0.7% 증가했다.

한편 젖소개량지도원교육에서는 농식품부 서재호 사무관이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축산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젖소개량사업소 김홍률 박사는 ‘젖소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축산과학원 조광현 박사는 ‘젖소 유전능력평가 활용’, 젖소개량사업소 민홍립 연구원은 ‘젖소 후대 검정사업’, 경북대구나협 강국현 계장은 ‘우수조합 지도사례’, 종개협 김은길 팀장은 ‘젖소 체형심사 교육’, 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영찬 원장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축산신문 · 이희영 기자 · Lhyoung@chuksannews.co.kr

양봉



▲17~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생명산업 DNA전'에서 꿀벌 마스크트가 어린이들에게 꿀벌과 양봉 산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책자를 나눠주고 있다.

양봉협회 친환경농업 숨은 일꾼 '꿀벌 살리기 운동' 전개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가 해마다 개체수가 감소하는 꿀벌을 보전하고 벌꿀과 로열젤리 등 양봉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친환경

농업의 필수 매개인 '꿀벌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양봉협회의 꿀벌 살리기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3월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꿀벌이 최대 60%까지 감소하는 등 세계적으로 꿀벌 마릿수가 줄고, 이로 인해 벌꿀 생산과 농작물 꽃가루반이(수분)까지 차질을 빚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다.

양봉협회는 이 운동 일환으로 도시 1가구 1벌통 갖기, 밀원수심기 등 연중 캠페인을 통해 꿀벌과 양봉 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나서고 있다.

또 17~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생명산업 체험전시회인 '생명산업 DNA전'에 전시관을 열고 소형 양봉장을 설치해 채밀 현장을 보여주고, 벌꿀 시식회와 벌꿀마사지, 밀납 양초·프로폴리스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의 이해를 넓혔다.

농민신문·류수연 기자



구어사슴목장 최진호씨 '대상' 영예

양록협, 우수사슴선발대회·엘크 52두·꽃사슴 1두 경합

강준수 양록협회장(사진 왼쪽)이 우수사슴선발대회에



서 대상으로 선정된 최진호씨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18회 전국우수사슴선발대회에서 구어사슴목장의 최진호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양록협회(회

장 강준수)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2010년 우수사슴선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특히 지난해보다 출전자격이 강화(생산량 기준 13kg~15kg)돼 무엇보다 명실상부한 전국의 우수사슴들이 출전한 행사가 됐다.

강준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상반기 구제역 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 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6월경 구제역이 꼬리가 잡히면서 발 빠르게 대회준비를 해 무사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매년 출전자격을 상향조정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지만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사슴과 녹용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양록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우수사슴선발대회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으로 18회째를 맞는 우수사슴선발대회는 엘크 52두와 꽃사슴 1두가 출전해 경합을 벌인 결과 경북 경주 구어사슴농장의 최진호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진호씨는 "아버지께서 1회 우수사슴선발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수상했고, 그 후 농장을 물려받아 사슴개량에 매진해왔다.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이창범국장 및 농축산단체장들과 양록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신문·이동일·dilee@chucksannews.co.kr